곡물가 폭등 국내물가 상승 부채질

옥수수·콩·쌀 등 2년새 2~3배 상승
100% 오를때 물가 0.7% 상승 압력

바이오연료 등의 수요가 늘어난데다 투기까지 겹쳐 옥수수·콩·쌀·밀 등 주요 곡물 국제가격이 최근 2년사이 많게는 3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같은 곡물가 '초강세'는 하반기 이후까지 이어져 계속 국내 물가불안을 부추길 전망이다.

◇옥수수 2.9배, 콩 2.6배, 쌀 2.1배로 =3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세계 곡물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 집계 결과 미국이 수출하는 옥수수의 운임포함 가격(CS&F)은 지난달 14일 현재 t당 410달러였다. 지난 2006년 상반기에 평균 140달러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만에 2.93배로 뛴 셈이다.

우리가 많이 수입하지 않는 품목이지만, 국제 쌀값 역시 2년동안 폭등했다. 2006년 3월 t당 491달러 수준이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은 7월 현재 2.11배인 1천36달러에 이른다. 태국산 장립종도 현재 750달러로, 2006년 7월의 321달러의 2.34배 수준이다.

◇옥수수·밀·콩 두배로 뛰면 소비자 물가 0.7%↑=국제 수급상황과 기후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에도 당분간 곡물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성명환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 폭우로 옥수수 및 콩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2008~2009년 옥수수와 콩 선물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구조적인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해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쌀 소비촉진 ▲2모작 우리밀 생산확대 ▲식량안보용 곡물 비축확대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해외농업 개발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밀·콩·옥수수 값이 동시에 100% 오를 경우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0.6%, 0.7%의 상승 압력을 받는다. /연합뉴스

"자금흐름 원활 유동성 문제없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그룹 주변에서 떠도는 자금위기설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3일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일 열린 그룹의 금요 경영특강에서 "직원들이 열정과 책임을 다해 맡은 직무를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최근 나도는 유동성 위기설을 일축하고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 회장의 언급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골자로 한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은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달 31일 시중에 나도는 유동성 위기설의 불을 끄기 위해 부동산, 유가증권, SOC(사회간접자본) 지분 등 자산매각을 통해 총 4조5천74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자금 확보방안을 내놨었다.

박 회장은 특강에서 "외환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400~500%에 달할 정도로 어려울 때에도 공적자금 등 외부지원 한 푼 받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살아남았다"면서 "올해만 그룹 순이익이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자금흐름이 원활한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IMF위기는 느닷없이 찾아온 것이어서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당했지만, 지금의 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인데다 각종 선진 금융기법을 통해 유동성과 부채비율 등 경영지표를 잘 관리하는 등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 계획대로 자산매각이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대해서도 박 회장은 "4조5천740억원대의 유동성 확보방안 중에서 절반 가량은 이미 확보돼 있으며, 나머지도 시장상황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외건설 수주 최단기간 300억달러 돌파

올들어 347억달러 기록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단기간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5월 국내 업체들이 수주한 63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계약이 지난달 31일 이뤄짐에 따라 올들어 해외건설 수주액이 34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과 7개월만에 300억 달러 고지를 가볍게 넘어선 것으로, 연간 실적으로 사상 최고였던 작년의 398억 달러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런 수주증가 추세는 연말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목표인 450억 달러 수주는 무난하고, 나아가 500억 달러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주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중동에서 작년 대비 86% 증가한 208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176% 늘어난 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남미에서는 작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18억 달러를 수주해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프리카에서도 12억 달러를 기록중이다.

국가별로는 초대형 정유공장을 수주한 쿠웨이트에서 74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카타르(43억 달러), UAE(3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28억 달러) 등에서도 많은 수주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베이징 공항의 애니콜 광고 삼성전자가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현장 운영인력 200여명을 베이징에 파견, 올림픽마케팅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이징 공항에 대형 애니콜 옥외광고, 휴대폰 조형물 광고를 설치해 무선통신분야 올림픽 파트너로서의 삼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은 올림픽폰으로 통화하는 중국 젊은이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9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3	8	15	27	30	45	4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066,088,275	8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46,243,415	53
3	5개 숫자 일치					1,186,303	2,066
4	4개 숫자 일치					54,498	89,945
5	3개 숫자 일치					5,000	1,435,988

팝콘복권 (제119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433308
2	1억	5조	843780
		2조	65641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03844
5	50만	각조	3325
6	2천	각조	02
		각조	36
		각조	46
7	1천	각조	4
		각조	0
		각조	8

코스닥 5년 연속 적자면 퇴출

상장사 10% 98개사 대상

금융당국이 만성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는 코스닥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3일 상장규정을 고쳐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업체는 퇴출하고 4년 이상 적자인 업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2007회계연도 기준 4년 이상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코스닥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0% 가까운 98개사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적자기업이 67개사였다.

특히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과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낸 기업이 영업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주공-토공 통합안 8일께 발표

공기업 개혁방안이 오는 8일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안 발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준비한 건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발표시기는 8일에서 11일 사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